

스토리텔링 기반의 경관색채계획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마을을 대상으로 Landscape Color Plan based on Storytelling

이재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Jae-Hyun Lee(jhlee@uc.ac.kr)

요약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시행된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업 대상지인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전마을은 독특한 경관과 문화역사적 특색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행위와 관리 부족으로 특유의 경관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해안마을의 특색 있는 장소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경관색채계획은 마을 단위의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고자 할 때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전마을에 대한 지역색 조사와 지역의 역사, 지형적 특성,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주전마을의 고유한 경관색채 계획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소규모 마을 단위의 독자적인 경관색채 계획을 위해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주전마을 고유의 색채계획을 개발하고 향후 스토리텔링을 통한 경관색채계획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경관색채 | 스토리텔링 |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based on 「Basic plan of landscape forming project in Jujeon village」 which was performed during January ~ August 2011 as a target of 「Pilot project of landscape forming in coast village」 hel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project target, Jujeon village, Dong-gu, Ulsan metropolitan city has unique scenery and cultural and historic features. However, its distinct landscape is getting fallen due to insufficie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done without considering local feature. Therefore, we need to plan to increase the distinctive place value of coast village, and the landscape color plan is an essential element upon making entire harmony of village unit.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suggest authentic landscape color plan and improvement plan of Jujeon village through local color research, local history, geographical feature, and resident sense research of Jujeon village. Especially, for independent landscape color plan for a small village,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develop authentic color plan of Jujeon village based on storytelling and to provide possibility in landscape color plan through storytelling in the future.

■ keyword : | Landscape Color Plan | Storytelling |

* 본 연구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20821-004

접수일자 : 2012년 08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0월 29일

교신저자 : 이재현, e-mail : jhlee@uc.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관색채계획의 개념은 20세기 후반기, 정확히는 1970년대 중반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의 도시에서 시작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7년 퐁피두 센터에서 열린 장 필립 랑클로의 「색채의 지리학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다. 이 전시는 색채에 자연환경과 지역성과의 조화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도시색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도시가 가진 본 모습으로의 회귀라는 문제제기를 명확히 했다. 이 영향으로 1980년대부터 일본은 지역성과 장소성을 배려한 도시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개성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색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최근 그 활동이 깊이를 더해가며 색채의 지역성과 개성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지역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중심이 된 일본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에서 경관색채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화려한 그래픽과 과도한 색채로 인해 도시구역의 체계적인 계획이나 가로공간의 질서는 찾기 힘들었고, 지역의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색채는 그 선두에서 있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반성과 고찰을 통해,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행정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시흥시 가로경관색채가이드라인, 2009년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 2010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수립, 2011년 울산광역시 경관색채가이드라인 등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경관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법 시행 이후 현재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광역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은 그 적용범위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대다수의 광역지자체 단위의 색채계획

에서는 지역색 조사를 통한 풍토색을 주조색으로 설정하고 그와 조화를 이루도록 보조색과 강조색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과도한 색상을 제한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색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역의 풍토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없고 특히 광범위한 대상지일수록 도시의 색은 획일화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별 도시가 갖는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정된 지역이나 소규모 마을단위의 개성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 외에 또 다른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근 들어 지역마케팅에 일조를 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색채계획 기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 동구 소재의 주전마을을 대상으로 고유한 지형적, 문화적,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색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전마을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대상지인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마을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기본계획」이 진행되었고 본 연구는 그 중 일부분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7개 자연마을(상마을, 중마을, 아랫마을, 번덕마을, 큰불마을, 새마을, 보밀마을)과 주전해변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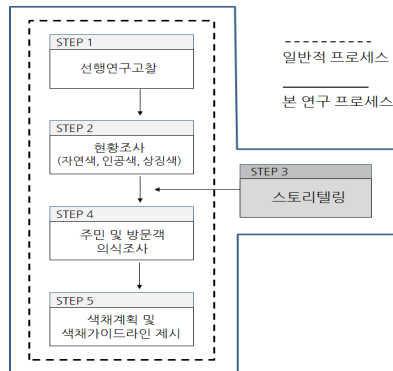


그림 1. 색채계획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색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다섯 단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경관색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계획의 차별적 방향을 정리한다. 둘째, 자연색과 인공색을 조사,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대상지의 역사와 문화, 지형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추출한다. 넷째, 주민 및 방문객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색채계획의 방향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조건을 고려한 주전마을의 색채계획을 진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본 색채계획은 기존의 경관색채계획 프로세스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반영함으로써 주전마을만의 고유한 특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설계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토리텔링과 경관색채

본래 스토리텔링은 어문학용어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혹은 ‘구전’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story)+말하기(tell)+현재적 상호작용(-ing)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말로서 ‘생산자에 의해 창작되거나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수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효과적인 담화형식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1].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은 광고나 기업 마케팅을 시작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캐릭터 상품,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역의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되는 등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지역 마케팅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지역개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역의 표현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한 지역에 스토리를 창조해 내는 이른바 ‘지역스토리텔링’은 외부 방문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마음의 점유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지역의 홍보와 마케팅에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끝없이 스토리를 갈망하는 인간 개개인의 감성적 속성에 대한 고

려 때문이며 이러한 감성적 요소들이 관광객들의 마음 속에 쉽게 파고 들어가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지역을 재창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에서 문화역사적 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듯 스토리텔링 대상물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경관자원과 문화적 자원, 역사적 자원 등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지게 되고 외부 방문객의 관심을 얻게 되면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역스토리텔링의 이러한 특성은 경관색채계획 수립 시에도 적용 가능하며 특히 규모가 작은 마을 단위의 색채계획 수립 시에는 훌륭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유사한 풍토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개성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경관색채계획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III. 대상지 현황

1. 주전마을 연혁

주전동(朱田洞)은 정조(正祖) 때 주전육리(朱田里, 朱田陸里)와 주전해리(朱田海里)로 갈라져 있었으며, 고종(高宗) 31년(1894)에는 주전동(朱田洞), 1911년에는 주전동(酒田洞)이라 하였다가 1914년에 이를 주전리(朱田里)라 하였다.

1998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3동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명유래

주전(朱田)이란 명칭은 그 훈(訓)대로 토색(土色)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위의 여러 지명들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볼 때,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주전(朱田)’ 서쪽 산을 총칭하여 ‘새바대’라 부르며, 가장 높은 봉우리를 ‘명자산(明白山)’이라 하고, ‘새바대’나 명자산(明白山)은 모두 밝은 산의 뜻을 가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주전은 단순히 붉은 토전(土田)을 가진 곳뿐만 아니

라 밝은 밭, 또는 주위가 탁 트인 넓은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현황

동구 지역의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주전마을은 울산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어촌마을 중 하나로 지난 30여 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으며, 시가지와는 해발 200여m의 봉대산으로 분리되어 도심지에서는 보기 드문 어촌마을의 정취와 공간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 울산광역시의 경관을 대표하는 ‘울산12경’ 중 하나로 ‘주전몽돌해안’이 선정되었으며, 이어 2009년 제 4회 ‘지역자원경연대회’에서 전국 10선에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국내 여행전문가들에 의해 발행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1001’에 주전몽돌해안과 봉수대가 소개되는 등 대내·외적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 대상지의 위치



그림 3. 대상지의 권역 구성

① 색채조사의 기준 및 방법

- 측정시기 : 2011. 4. 14 ~ 4. 17(4일), 일출 3시간 후부터 일몰 3시간 전 사이
- 시감측색 : 한국표준색표집을 이용한 육안측색
- 사진측색 : 디지털카메라(Canon 5D / 28-70mm)로 촬영한 사진데이터를 색채조사 전용프로그램(KSCA, 한국표준색채분석)을 사용하여 컬러모자이크 화상과 컬러팔레트 작성 후 먼셀값으로 표기하였다.

② 자연환경 색채 조사

- 토양색 조사
- 흙의 색채는 Y, YR 계열의 명도 7 이하, 채도 6이하이며, 주전을 대표하는 몽돌의 색채는 B, PB 계열의 명도 6 이하, 채도 1이하, N2 이하로 나타난다.

IV. 현황분석 및 색채계획

1. 현황분석

(1) 색채

주전마을의 경관색채 조사·분석을 위하여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 3]과 같이 2개의 권역(주전해리경관권역, 주전육리 경관권역)으로 구분하여 색채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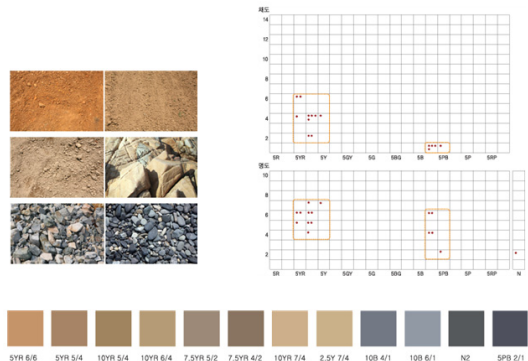


그림 4. 토양색 조사표

▪ 수목색 조사

수목의 색채는 G, GY 계열의 명도 6 이하, 채도 6 이하이며, 동해안 해안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대해양성 기후의 특성상 해풍에 강한 해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 있는 송엽국의 색채는 RP 계열의 명도 6 이하, 채도 12 이하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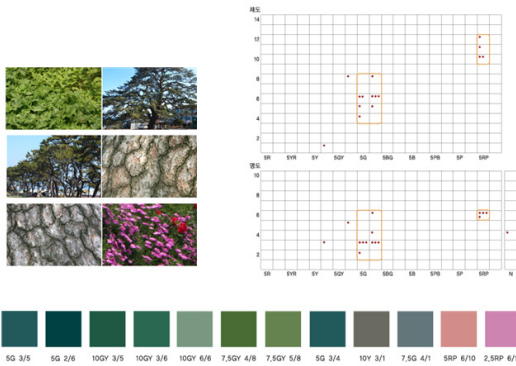


그림 5. 수목색 조사표

▪ 주전해리경관권역

주전해리경관권역의 자연환경색채는 3곳의 조망점에서 원경, 중경, 근경으로 구분하여 촬영하고 색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경관의 주조가 되는 해안풍경에서 PB, B 계열, 해안가의 바위에서 YR, Y 계열의 분포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특히 주전해안의 몽돌에서 N 계열의 분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근경보다 원경에서 채도가 낮게 나타나며 명도 9, 채도 4 이하의 색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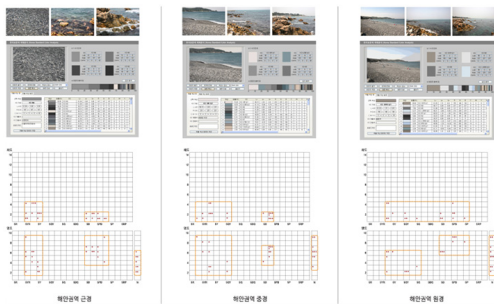


그림 6. 해리경관권역 조사표

▪ 주전육리경관권역

주전육리경관권역 역시 3곳의 조망점에서 원경, 중경, 근경으로 구분하여 촬영하고 색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경관의 주조가 되는 녹지에서 GY, Y 계열의 분포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명도 9, 채도 8 이하의 색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육리경관권역 조사표

③ 인공환경 색채 조사

건축물을 비롯한 기타 경관요소들을 조사/분석하였으며 특히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축물의 외벽 색상에 대해서는 중복색상을 배제하고 한국표준색표집을 이용한 육안측색법으로 조사/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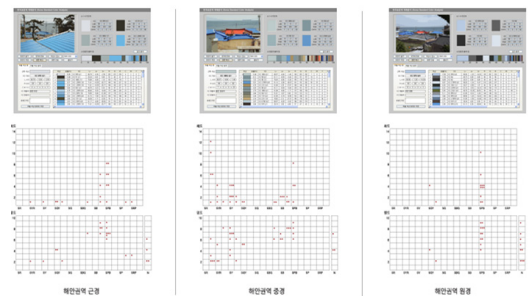


그림 8. 해리 및 육리경관권역 조사표

▪ 주전해리경관권역

전체적으로 YR, Y, PB, B 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며, 명도의 변화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면서 중,고명도의 분포가 많다. 색채경관을 주도하는 건축물의 지붕과 벽면 색채가 고명도, 고채도의 무분별한 사용과 보색계

열의 색상대비로 자연속에 배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주전육리 경관권역

전체적으로 YR, Y, PB 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며 명도의 변화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면서 증명도의 분포가 많다. PB 계열의 고채도 색채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지붕색들은 색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민의식

① 설문조사

- 주민 대상 : 31문항, 200부(유효설문지 : 112부)
- 방문객 대상 : 23문항, 200부(유효설문지 : 148부)
- 설문조사 기간 : 2011년 6월 2일 ~ 6월 10일(9일간)
- 설문조사 내용 : 일반사항, 이용목적 및 빈도, 마을의 인상과 경관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마을의 이미지와 대표 경관자원, 경관색채에 대한 인식, 사업참여도 등

② 인터뷰 조사

설문조사 내용 : 주전마을의 특성, 이야기거리, 자랑거리, 현재의 마을이미지, 색채에 대한 인지도나 의식정도, 마을 개선사업 시 참여의사 등

③ 조사결과

표 1. 주민의식조사 결과

주요 설문내용	결과
주전마을의 대표이미지	바다(40%), 몽돌해수욕장(32%) 순
주전마을의 상징색채	파랑(48%), 청록(22%) 순
현재의 색채조화	조화롭지 않다(87%)는 의견이 압도적
색채개선분야	외벽색(36%), 가로시설물(27%), 지붕색(20%) 순
지향하는 미래의 색채이미지	화려하고 도시적인 이미지보다는 따뜻하고 정돈된 이미지와 수수하고 전원적인 여촌마을의 이미지를 기대

(3) 현황분석 종합

표 2. 현황분석종합

구분	분석결과	특징	
자연환경색채	풍토색	YR, G 계열의 명도3~7, 채도2~6의 영역	-채도 6이상 배경색이 안됨 -기조색 범위선정
	해안권역	YR, PB 계열의 명도 2~9, 채도 1~4의 영역	(YR, G, GY 계열 명도 7 이상/채도 1이하 또는 PB 계열 명도 8이상/채도 1이하, 무채색 N9 이상)
	내륙권역	GY 계열의 명도2~6, 채도 2~6의 영역	
인공환경색채	해안권역	Y, B, PB 계열의 명도 6~8, 채도 1~4의 비중이 높음, R, PB 계열의 일부 건물색이 채도10 이상	-건축물의 주조색은 채도 1~4이하 범위 -건축물의 보조색은 채도 6이하 범위
	내륙권역	YR, Y, PB 계열의 명도 4~9, 채도 1~4의 비중이 높음, PB 계열의 일부 건물색이 채도8 이상	-강조색은 6이상
주민의식	설문조사	주전마을의 현재와 미래의 색채이미지, 상징이미지, 상징색 등 추출	-미래는 정돈된 이미지의 수수하고 전원적인 여촌마을의 이미지를 기대 -바다와 몽돌해수욕장을 상징이미지, 파랑색을 상징색으로 선정

색채현황조사와 주민의식조사를 종합한 결과로 주전마을의 기조색은 마을 전체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색채를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고명도, 저채도의 난색계열의 YR, G, GY 계열 명도 7 이상/채도 1이하 또는 한색계열의 PB 계열 명도 8 이상/채도 1이하, 무채색 N9 이상의 색채범위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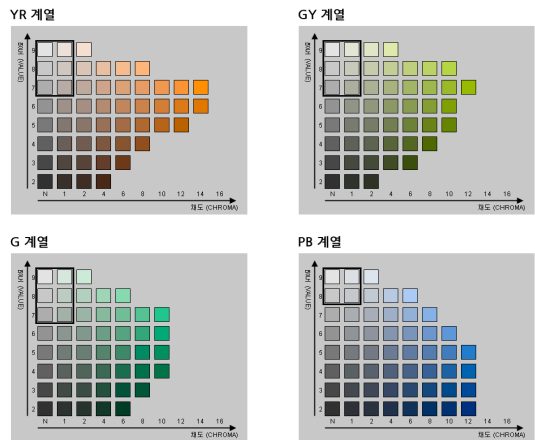


그림 9. 기조색 범위

2. 스토리텔링 요소 및 색채기본계획

(1) 스토리텔링 요소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전마을의 자원 보유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전마을이 보유한 자원의 정확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원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전마을이 보유한 자원조사를 위한 항목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관광자원 유형분류’와 ‘어메니티 자원조사 항목’[1]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수를 파악하였다.

자원조사 결과 주전마을은 지형, 식물, 전통, 특산, 경관, 공동체, 체험자원 등 총 7개 항목, 37개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향후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경관색채계획 설계 시 기본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표 3. 자원조사항목

구분	내 용
지형자원	지명(주전), 주전옥해리, 툇재이산, 봉대산, 뒷미동, 염씨도래술, 사들들, 우두들, 셋들, 큰불개안, 후리개안, 몽돌 해변
식물자원	당목(해송), 후박나무, 방풍림(해송)
전통자원	전통가옥, 남목봉수대, 남목마성, 제당(10개소), 전통돌담, 옛길
특산자원	전복, 돌미역
경관자원	몽돌해변, 성지방돌, 노랑돌, 시리바위, 이덕도, 깎박덤, 곱암(미역바위)
공동체자원	동제(洞祭), 찜치기, 갯후리어법, 머구리, 해녀
체험자원	후리그물 당기기, 찜치기

주전마을은 독특한 경관자원과 전통자원, 특산자원을 잘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 중의 하나로 해안선을 따라 천연 조약돌로 형성된 몽돌해변과 갯바위, 방풍림으로 구성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는 송림, 해안길을 따라 형성된 전통가옥 등은 특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광명한 땅’, ‘붉은 밭’이라는 의미의 지명은 스토리텔링의 지형적 요소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곳곳에 남아있는 제당터와 당산나무, 전통가옥 등은 마을경관의 주요자원으로서 주전마을만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관자원 이외의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자원으로는 1981년에 수협중앙회에서 제작한 ‘어촌에서 온 편지’라

는 홍보영화로 주민들이 자연산 전복의 재배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상황을 각색·극화한 것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전복과 돌미역이 주전의 대표특산물로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또한 주전마을은 7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마을에는 그들을 수호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세분화가 단위 어촌마을에 보다 많은 신(神)들이 있게 하는 배경이 되어 스토리텔링의 좋은 자원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2002년 ‘울산 12경’ 중 하나로 ‘주전 몽돌해안’이 선정되었으며, 이어 2009년 제4회 ‘지역자원경연대회’에서 전국 10선에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국내 여행전문가들에 의해 발행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1001’에 주전몽돌해안과 봉수대가 소개되어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요소로 손색이 없다.

이렇듯 여러 가지 주전마을의 자원들 중 실제로 이야기의 원형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이야기 끼리를 통해 주전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앞서 [표 1]주민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주전마을의 대표이미지라고 응답한 바다와 몽돌해변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자원이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주전(朱田)이라는 지명 역시 주전마을을 대표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에 설득력이 높은 자료로 판단되어 색채계획 시 지역 풍토색을 기반으로 주조색과 보조색을 선정하고 강조색에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용하여 마을의 개성적 이미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표 4. 스토리텔링 대표 자원

구 분	내 용
주전의 역사와 유래	지명(朱田)
울산12경	몽돌해변
어촌에서 온 편지	전복, 미역
신들의 마을	제당, 동제

이상과 같은 스토리텔링 대표 자원들은 주민과 방문객들로 하여금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주전마을 만들기 에 색채계획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특히 마을 단위의 색채계획을 만들어 갈 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티브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색채계획

- 지역 경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리경관권역과 육리경관권역으로 구분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하였다.
- 주전마을의 기조색을 중심으로 기조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 등이 조화 있는 색채의 질서감과 통일감을 연출하도록 계획하였다.
- 기조색은 채도 2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조색은 채도 2~4이하, 보조색은 채도 6 이하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 강조색의 사용범위 역시 권역별로 기조색을 중심으로 하되 스토리텔링 요소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 지붕색은 권역별 특성에 따라 특색을 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하였다.

① 해리경관권역

- 해리경관권역은 PB 계열의 기조색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조색과 보조색을 구성하며, 전체적으로 명도가 높고 밝은 색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해안권역의 특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특성과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추출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몽돌해변과 전복, 바다 등이 강조색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을 유도하는 색채로 구성하였다.



그림 10. 색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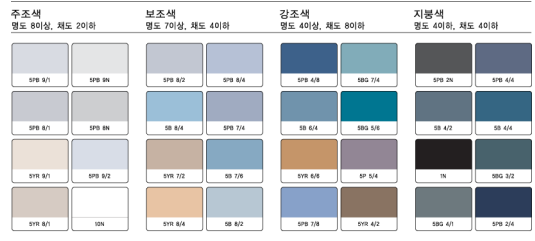


그림 11. 색채팔레트

② 육리경관권역

- 육리경관권역은 YR, GY, G 계열의 기조색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조색과 보조색을 구성하며 전체적으로 중명도의 중간톤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내륙권역의 특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특성과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추출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토양의 특성과 주전마을의 역사성 등이 강조색으로 구성되어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유도하는 색채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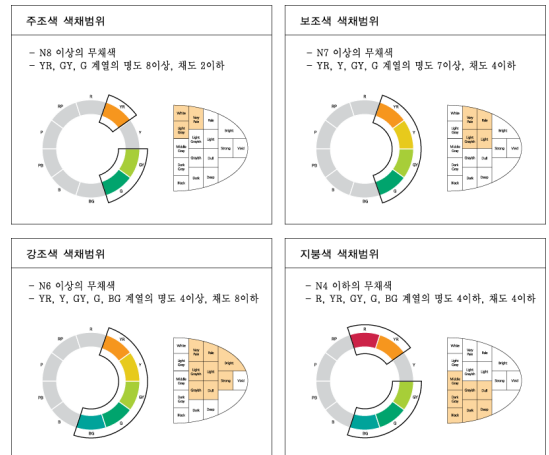


그림 12. 색채범위



그림 13. 색채팔레트

V. 결론 및 과제

이상과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마을에 대한 색채 계획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와 성과를 얻게 되었다.

최근의 대다수 색채계획에서 다루어지듯이 지역색을 조사하여 지역의 풍토와 조화로운 색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당연한 결과는 물론이고 주전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 주민들의 의식 등을 조사하여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어 고유한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단위의 경관색채계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나 색채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서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물이나 인공물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강조색의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발전시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및 계획의 성과를 이어 지역 고유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개성적인 색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다른 색채계획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객관적인 스토리텔링과의 접목을 모형으로 개발하여 보다 실제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1년 8월에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2012년 초부터 실제 시행을 하고 있으나 개인적 취향을 규제할 법적 제도의 미비와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색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윤성수, 김지현 ‘어메니티를 기반으로 한 농촌마을 개발계획’, 한국농촌계획학회, 2006
- [2] 우성호, 박석수,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공공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0.
- [3] 박희경, 삼청동 지역색 분석을 통한 도시이미지

색채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4] 주원석, 김흥기, “강원 동해안 어촌어항의 경관색채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2007.
- [5] 이연주, “개성적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색채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8.
- [6] 변지환, “대구 약령시 색채경관에 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08.
- [7] 김윤희, “지역경관 아이덴티티를 위한 환경색채 개선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009.
- [8] 이상은, “충주시 역사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방안 연구”, 한국동양예술학회, 2009.
- [9] 김윤희, 지역경관 아이덴티티를 위한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0] 이병훈, 농촌관광마을의 스토리텔링 구현을 통한 장소성 확보,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1] 이석현, “풍토환경을 고려한 전원마을 환경색채 계획”, 한국색채학회지, 2011.
- [12] 김지현, 정창무,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지역자원 활성화 연구”, 대한국토도시학회지, 2011.

저 자 소 개

이 재 현(Jae-Hyun Lee)

정희원



- 1990년 2월 :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응용미술학사)
- 1994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응용미술학석사)
- 1999년 3월 ~ 현재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교수

<관심분야> : 아이덴티티디자인, 경관색채